고용동향 포커스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⊙ 3월 취업자 수는 64만 9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하여, 전월의 고용성과(83만 5천 명)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3년 2월 이후 고용 호조세 지속

- 취업자 증가폭도 2013년 2월(20만 1천 명 증가) 이후 확대 추세
- 고용률도 59.4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0%포인트 증가하였으며(15~64세 고용률은 64.5%로 전년동월대비 1.1%포인트 상승), 2013년 초반 이후 고용률 증가폭 확대 추세 지속
- 실업자 수는 102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1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이 0.4%포인트 상승한 것은,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(-2.2%) 등을 감안할 때, 1월이나 2월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반영

⊙ 최근의 고용 호조세 지속은 (1)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용성과에다 (2)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특징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(3)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 및 (4) 기저효과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

- (1) 장기·구조적 측면 :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 및 50세 이상 연령층 고용증가 지속
- (2) 최근 특징 : 여성, 서비스업, 중소규모 사업체 위주의 고용성장
- (3) 경기회복 : 서비스업 임시직 등의 고용증가
- (4) 기저효과 : 1월과 2월의 월등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에도 일정 부분 기인

- (5) 기타 : 제조업 및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성과

⊙ 2014년 3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2013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새로운 특징들이 다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

- 2월과 1월의 대단한 고용성과는 설 특수와 기저효과 등에 일시적으로 힘입은 바 컸으나, 3월 들어 그러한 일시적 영향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진 가운데, 2013년 하반기 들어 등장한 여성·서비스업·중소규모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성장 모습이 다시 등장
- 여기에다 서비스업의 임시직 고용증가, 제조업과 대규모 사업체의 꾸준한 고용증가가 어우러져 3월의 고용성과를 시현

⊙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
⊙ 고용증가를 50세 이상 연령층이 여전히 주도하는 가운데, 청년층 고용이 지난해 9월에 이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, 이에 더하여 40대 연령층의 고용 약진 지속

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50만 7천 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(50대 29만 2천 명 증가, 60대 이상 21만 5천 명 증가)
- 청년층 고용이,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, 6만 9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폭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
  ※ 청년층 가운데 10대의 고용도 증가(2만 8천 명)하였으며 20대 전반(20~24세)의 고용도 6만 5천 명 증가한 반면, 20대 후반(25~29세)의 고용은 2만 4천 명 감소하였는데, 이는 주로 이 연령층 인구 감소(6만 1천 명 감소)와 밀접히 관련
- 40대 연령층의 고용증가는 근래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(12년 11천 명 증가, 13년 22천 명 증가), 2월의 10만 9천 명 증가에 이어 3월에도 9만 7천 명 증가

⊙ 여성이 2013년 7월부터 전체 고용성과를 주도하다가 지난 3개월(13.12~14.2) 동안

은 남성이 여성을 추월하였으나, 3월 들어 여성의 고용성장 주도로 복귀

- 3월 여성 고용 36만 4천 명 증가, 남성 고용 28만 5천 명 증가
- 여성의 고용증가 주도 현상은 최근의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
- 특히 2014년 2월과 1월 남성 고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여성의 고용성과를 능가

⊙ 고용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20대 후반 남성을 제외한 전 성별·연령계층별 집단들에서 고용률 상승

-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감소 추세가 2013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, 2013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이 증가세를 지속
- 3월의 고용률은 2월과 1월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되었으나 고용률 증가폭 확대 추세는 지속
- 남성 고용률은 70.6%로서 0.7%포인트 상승한 반면, 여성 고용률은 48.7%로 1.3%포인트나 상승
- 50대 고용률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3월 50대 고용률은 73.6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7%포인트 상승
- 20대 후반(25~29세) 고용률은 68.9%를 기록하여 0.6%포인트 상승하였는데, 이는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68.9%로 2.1%포인트 상승한 데에 기인하며,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은 68.8%로 오히려 1%포인트 하락

  ※ 20대 후반 남성 고용률 하락은 20대 후반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이 75.9%에서 72.0%로 3.9%포인트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

  •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보다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동이나 이를 위한 준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론 가능

⊙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상용직 고용이 52만 4천 명 증가하여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, 임시직도 15만 7천 명 증가한 반면, 일용직은 2만 7천 명 감소하였으며, 비임금근로자도 5천 명 감소

- 임시직 고용증가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
- 자영업자는 2013년 1월부터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, 최근 들어 감소폭 축소

⊙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농림어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,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5만 1천 명 증가하여 고용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, 제조업에서 14만 3천 명, 건설업에서 5천 명 증가
- 그동안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으며 3월에도 12만 명 증가하였으나, 도매 및 소매업 17만 명 증가, 숙박 및 음식점업 16만 6천 명 증가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내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여러 부문에서 고용성장

  ※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 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
- 3월 서비스업 고용증가에는 2월에 이어 교육서비스업(9만 1천 명 증가)도 상당한 기여

⊙ 중소규모 사업체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11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,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증가는 53만 명으로 더욱 크게 증가
- 취업자의 대부분(90% 이상)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,
- 2013년 하반기 들면서부터 다시 중소규모 사업체가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, 이후 사업체 규모 간 고용성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, 대규모 사업체도 고용성과 측면에서 선전을 거듭

⊙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, 공공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미미

- 2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 2만 9천 명 증가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⊙ 2014년 1월 명목임금(임금근로자 전체) 상승률은 15.9%로 높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14.7%로 높으나, 이는 명절효과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향후 주의해서 모니터링 할 필요

- 2014년 12월 명목임금 상승률은 15.9%로 전년동월의 -6.6%와 크게 대비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(1월 1.1% 상승)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목임금 상승은 곧바로 실질임금 상승(14.7%)으로 연결되어 이 역시 전년동기(-7.9%)와 크게 구분
- 정액급여 상승률(3.5%)은 전년동기의 성과(4.6%)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, 특별급여 상승률(75.7%)이 전년동기의 실적(-37.4%)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주로 명절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
- 특별급여 지급이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큰 폭의 특별급여 상승
- 2014년 2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2.9%로서 1월의 매우 큰 값(8.5%, 교섭률 0.1%)에서 벗어나 예년과 유산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 가능

⊙ 2014년 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13.6시간(7.4%) 감소

- 2014년 1월 근로시간(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전체 근로시간)은 169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.6시간 감소(7.4% 감소)
- 이러한 큰 폭의 근로시간 감소는 설 명절로 인해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1월에 비해 2일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

최근 해외 고용 동향

⊙ 유로존(18개국, 라트비아 추가)의 고용실적은 여전히 열악하며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,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실적은 대체로 우수한 고용실적이 지속

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,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,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
- 최근 들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,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그대

로 유지되고 있어 양자의 격차가 확대

- 미국의 2월 실업률이 6.7%로 1월에 비해 0.1%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7% 아래에 위치하며, 고용률은 67.7%로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
-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(2013년 4분기 실업률 12.0%),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
- 고용률에서도 한·미·일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반면, 유로존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
- 다만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OECD 평균이나 유로존 수준보다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

⊙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는 여전히 우수한 반면,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

- 독일의 고용률은 2013년 4분기에 73.5%로 높으며, 2013년 4분기 청년 실업률은 7.7%에 불과(경제전체 실업률은 5.1%)
- 반면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4분기에 26.1%이며, 청년 실업률은 55.2%, 그리고 4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54.6%이며 청년 고용률은 16.5%에 불과
- 그리스의 경우도 4분기 경제전체 실업률은 27.6%로 높으며, 청년 실업률은 58.1%, 그리고 4분기 경제전체 고용률은 49.1%이며 청년 고용률은 12.1%로 열악